

삼성ENG, 세계 건설기업 15위로...

국제 건설도급 부문 15위에 올라 ... 국내기업 중동시장 21% 점유

삼성엔지니어링이 국내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세계 건설기업 순위에서 20위권 안에 진입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8월27일 발간 예정인 미국 건설전문지 ENR(Engineering News Record)이 선정한 2012년 세계 225대 건설기업 중 국제 도급자(International Contractors) 부문 15위에 올랐다.

순위는 자국 내 매출을 제외한 해외 매출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현대건설은 2011년에서 2계단 하락한 25위로 국내 건설기업사 중 2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GS건설이 2011년 48위에서 2012년 32위로 16계단 이상 올라섰다.

대림산업이 40위, SK건설이 45위, 대우건설이 50위로 모두 2011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반면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2011년 56위에서 2012년 63위로 내려앉았다.

포스코건설은 2011년 123위에서 무려 57계단을 한꺼번에 뛰어올라 66위에 올랐다.

이로써 100위권에 이름을 올린 국내 건설기업은 모두 8개로 집계됐다.

해외 매출과 국내 매출을 모두 합친 글로벌 도급자(Global Contractors) 순위에서는 현대건설이 31위, 삼성엔지니어링이 33위, GS건설이 34위, 대림산업이 39위, 삼성물산이 41위, 대우건설이 43위, SK건설이 47위, 포스코건설이 52위를 각각 차지했다.

세계 225대 건설기업들의 해외 매출로 분석한 국가별 세계 건설시장 점유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5.7%로 2011년과 같은 7위에 올랐다.

특히, 국내기업들은 중동 시장의 20.7%를 점유해 높은 의존도를 보였다.

중동 건설시장 내 순위로는 삼성엔지니어링이 3위, 현대건설이 4위, GS건설이 5위, 대림산업이 10위로 톱10에 들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8/27>